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년 1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3.(목) 오후 2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1. 13.(목)	담당부서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수출입과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담당과장	조웅환 과장(044-203-4020) 김대일 과장(044-203-4030) 손호영 과장(044-203-5340) 정석진 과장(044-203-4910)	담 당 자	황유정 사무관(044-203-4024) 윤한성 사무관(044-203-4034) 김동기 사무관(044-203-4042) 임경섭 사무관(044-203-4917)

수출증가와 공급망 안정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

- 산업부 장관, 업종별단체·유관기관과 「무역·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

◇ **10대 수출유망품목 R&D 확대**(1.2조원), **소상공인·내수기업 1,800개사 수출기업화**
◇ **공급망 관련 법령 보강·정비 착수, 전문적·상시적 분석센터 신설 검토**
◇ **무역금융 261.3조원**(5.4조원↑), **수출마케팅 60%**(1,900억원) **상반기 집중 지원**
◇ **RCEP, 한류 등 활용한 「동남아시장 무역·투자 확대 전략」 마련**('22.上)

□ 1월 13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 주재로 **「무역·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이어 **수출동력을 지속 유지**하고, 최근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점검회의를 개최

○ 반도체·자동차·바이오·기계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코트라·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수출확대 방안과 공급망대응 방안 논의**

《 「무역·공급망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13(목), 14:00~15:30 / 대한상공회의소(20층 챔버라운지)
◇ **주제** : '22년 수출동력 지속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업종별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 (정부) 산업부 장관, 통상차관보,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 (업종/기관)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석유·디스플레이·전지·바이오·기계·전자·섬유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무보, 수은, 중진공

□ 이날 회의에서 **문승욱 장관**은 "지난해 무역인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역대 최고의 수출과 무역 실적을 달성**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등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언급

○ 다만,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물류난, 공급망 불안** 등 **여러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년** 수출은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

- 특히, **올해 1분기**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원과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

○ 이를 위해 "정부는 원자재 수급, 수출입 물류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무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원-팀 코리아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함

□ 금번 회의에서는 **올해 무역 여건과 공급망 이슈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무역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역 여건 및 전망 》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경제성장률 전망(IMF) : +4.9% 세계 교역량 전망 : ('20) △5.3% → ('21e) +10.8% → ('22e) +4.7%

○ **(무역 여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 **(무역 전망) 수출·수입 모두 2% 이상* 증가**하며 **무역의 성장 모멘텀**은 이어지겠으나,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逆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2년 수출 증가율 전망(%) : (정부) +2.0, (한은) +1.1, (산업硏) +1.3, (무역硏) +2.1, (KDI) +4.7

《 업종별 수출 전망 》

□ 올해 전방산업 및 건설경기 회복, 디지털 경제 전환, 친환경 산업 수요 증가 등으로 **석유제품·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대부분 업종의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 **철강·선박·가전** 등은 **전년대비 逆기저효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2년 업종별 수출 전망 >

	☀☀	☀	☁	🌧
업종	석유제품,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석유화학, 일반기계, 섬유	차부품,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철강, 선박, 가전

※ ☀☀ : 5% 이상 증가, ☀ : 0~5% 증가, ☁ : △5% 이내 감소, 🌧 : △5% 이상 감소

《 공급망 이슈에 따른 영향 》

□ **철강·섬유 업종** 등은 사전 재고 확보 및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중으로 **공급망 차질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전자·이차전지·석유화학·기계 업종**은 **별도의 공급망관리 TF 혹은 공급망 협의회**를 발족하여, 사업재편, 고부가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자동차·선박 업종**은 향후에도 부품·기자재 등과 관련 **간헐적 수급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 **수입선 다변화, 국내 대체조달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

《 건의사항 》

□ **섬유, 석유화학, 전자 업종**은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물류지원 확대**를, **반도체·바이오 업종**은 **주요국의 수입규제 등 정보제공 확대**를 요청

□ 또한, **신흥시장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등도** 건의

《 무역진흥대책 주요내용 》

□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무역 리스크 관리, ▲수출동력 강화를 위한 총력지원, ▲안정적 성장을 위한 무역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무역 전망 및 진흥대책」을 발표**함

❶ **(상반기 수출 총력지원) 수출유망품목 R&D 확대,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 무역금융·수출마케팅 상반기 집중 지원**과 함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중점 추진**

- **(주요품목 수출 지원) Big3 등 10대 수출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R&D 지원**을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철강·선박·가전 등** 逆기저효과 우려 업종에 대한 **친환경·저탄소 지원을 강화**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이차전지, OLED, 첨단기계·장비, 프리미엄 철강소재 등

- **(수출저변 확대) 소상공인·내수기업 총 1,800개사의 수출기업화, 스타트업 120개사와 글로벌 기업 매칭, 지방기업 950개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새로운 주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금융·마케팅) 261.3조원 규모**(5.4조원↑)**의 무역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고, **수출마케팅 예산의 60%**(1,900억원)**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판로 개척**을 지원

- **(물류해소) 선박공급**(월 4척↑, 전용선복 900TEU/주) **및 물류비**(320억원) **지원 확대, 대중소 운송협력 강화***, **장기운송계약 확산** 등 **물류비 부담 최소화**

* 포스코(~'22.12월)·현대글로비스(~'22.4월)·대한항공(~'22.6월), 삼성SDS 신규 참여('22.2월~)

❷ **(공급망 관리강화) 소부장수급대응지원센터 중심**으로 **수출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협업**하여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고,

-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해 **기존 법령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정비 하는 입법 작업 착수 추진**

- 신속하게 동작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외 공급망 동향을 전문적·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분석센터**(민간전문가 중심 운영) **신설** 검토

- FT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핵심광물·소재 자원부국과 공급망 분야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단계적으로 구축**

❸ **(RCEP 활용지원)** 2월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활용 지원 강화**

- RCEP 역내의 **FTA 해외활용센터를 추가 확충**(총 12개)하고 역내 **원산지정보 제공, 컨설팅, 마케팅, 통관** 등을 **원스탑으로 지원**

- RCEP, 한류,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동남아시장 무역·투자 확대 전략」**을 **금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리기업의 **아세안 역내 공급망 진입, 소비재 수출 확대, 온실가스 해외감축**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

□ 이날 문승욱 장관은 "정부는 **수출 총력지원**과 **빈틈없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또한, "1.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토대로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 또한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RCEP을 통해 역내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는 점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대책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아울러 "올해에도 **민관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전방위적으로 협력**하여 지난해 달성한 최고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 **흔들림 없는 무역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함

붙임 : 1. 「무역·공급망 점검회의」 개요
2. 2022년도 무역진흥대책 주요내용
3. 「2022년도 무역 전망 및 진흥대책」(별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황유정 사무관(☎ 044-203-40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역 · 공급망 점검회의」 개요

1. 개 요

□ **일 시 : '22. 1. 13. (목)**, 14:00~15:30 (90분)

□ **장 소 :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 (서울 중구)

□ **참 석 :**

○ **(정 부) 산업부 장관**, 통상차관보,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무역정책관, 소부장협력관, 무역정책과장 등

○ **(업 계) 주요 업종별*** 단체(12개)

*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석유·디스플레이·전지·바이오·기계·전자·섬유

○ **(기 관)**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진공

□ **주 제 : '22년 수출동력 지속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업종별 현황 점검 및 대응 방안**

2. 진행 순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14:03 ('03)	▸ 모두 말씀	**산업부 장관**
14:03~14:10 ('07)	▸ '22년도 무역 전망 및 진흥대책	무역정책관
14:10~14:13 ('03)	▸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점검 및 대응 방안	소부장협력관
14:13~15:03 ('50)	▸ 업종별 수출 확대 및 공급망 이슈 대응 방안	경제단체/업종별 단체
15:03~15:28 ('25)	▸ 토론 (건의사항 답변 등)	산업부/유관기관
15:28~15:30 ('02)	▸ 마무리 말씀	**산업부 장관**

※ 모두 말씀까지 공개

붙임 2 | **2022년도 무역진흥대책 주요내용**

◈ **2022년 업종별 무역 전망, 공급망 이슈 점검 등을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규모를 확대하는 무역진흥대책 추진**

1 공급망·물류 등 무역 리스크 신속 대응

1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관리, EWS 운영 등 **공급망 관련 법령 보강·정비작업 착수, 전문적·상시적 분석센터 신설 → 지원체계 구축**

2 **[물류난]** **선박공급**(중기 전용선복 900TEU/주) **및 물류비**(320억원) **지원확대, 현지물류 지원**(100억원, 234사)**, 장기운송계약 확산** 등 **→ 물류비 부담↓**

2 수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수출 총력 지원

3 **[수출유망품목 지원] R&D확대**('21년 1조원 → '22년 1.2조원)**, 맞춤형 수출지원**

* (바이오) 백신, 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R&D 지원 ('21 3,361 → '22 3,767억)
(친환경차) 공장증설 없이 외국인투자, 지방투자촉보조금 지원(미래차특별법 제정)

4 **[수출저변 확대]** 소상공인·내수기업**1,800개社 수출기업화,** 스타트업**1,500개사 scale-up, 120개사 글로벌기업 매칭,** 지방기업**950개社 해외진출지원, 40회 지역특화전시회**

5 **[무역금융] 무역금융 공급 확대**(261.3조원)**, 공급망 등 현안 대응 지원**

* 경제안보핵심품목 수입보험 지원, 중소기업 해외현지법인 운전자금 보증신설, 첨단전략산업기술 보유기업 보험보증료 우대, 新산업·소부장 대상 3년만기 보증상품 신설(22.上)

6 **[마케팅] 예산 60%**(1,900억원) **상반기 집중 투입, 온라인·현지지원 강화**

* 화상상담(6.5만건↑), O2O 전시회 2배 확대, 현지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4,000개社), 해외지사화(4,000개社), 마케팅 대행(5,000건), 지재권 특화 상담(600개사)

3 안정적 성장을 위한 튼튼한 무역기반 확충

7 **[신시장 진출] 신규 FTA 확대, RCEP 발효** 계기 **역내 공급망 활용** 강화

※ RCEP, 한류 등을 활용한 「동남아시장 무역·투자 확대 전략*」 마련('22.上)

***** 아세안 역내 공급망 진입 지원, 소비재 수출 확대, 온실가스 해외감축 프로젝트 추진 등

8 **[탄소중립·ESG] 인센티브 확대, 친환경시장 진출 지원, 국제규범 대응**

* 탄소중립 R&D(4,082억원, 2배↑)·세제·금융·제도지원(1.15조원), 친환경산업 수출지원(바우처 50억원), 온실가스 해외감축 추진, CBAM 대응, ESG 자가진단 활용 제고(5만개사)·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9 **[무역 디지털 전환] 수출정보 지능화**(620만개 해외기업 AI 분석)**, 디지털 옴니채널 구축, 모바일 보험상품 확대**(+수입보험)**, 전문인력 양성**(약 900명)